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심 고조

### 입장권 사전 구매·후원금 기탁 잇따라...10개국 유학생 홍보대사 위촉도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관심이 국내는 물론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에서는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입장권 사전 구매는 물론 각종 후원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박람회 홍보를 위해 나섰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광주은행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이하 ‘2023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4억 800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사전 구매했다고 밝혔다.

송중욱 은행장을 비롯한 광주은행 주요 임원과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사전 구매 약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당시 후원은행으로서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중추적 역할을 한 데 이어, 2023정원박람회 주거래은행이자 후원사로 선정됐다. 입장권 대량 사전구매뿐 아니라 앞서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또 순천만국가정원 내 위치한 광주은행 정원을 새롭게 리뉴얼 하고 전라권을 포함한 수도권 등 140여 개소의 영업점을 활용해 박람회 홍보와 입장권 판촉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같은날 제1차 2000만원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갖고 순천시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재)에서 500만원 상당의 협쌀 3000포대를 기부했으며, 손점식 부시장을 비롯한 순천시정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일동들이 20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



순천농협이 지난 1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며 협쌀을 기부했다. <순천시 제공>

또 해동면을 대표해 김숙영 이장(상삼15리), 이해경 이장(신대3리)이 주민단체, 소상공인, 면민 등이 십시일반해 모은 20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증서를 전달해 박람회 성공에 대한 해동면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2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회장 임경준, 본부장 이창호)에서 102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증서를 전달해 지역 중소기업의 박람회 지원 의지를 보이며 연이은 입장권 구매 행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을 통한 해외 홍보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1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순천만 메신저’ 15인을 위촉했다. ‘순천만 메신저’는 전남대 대학에 재학 중인 필리

핀·중국·네팔·우즈베키스탄 등 10개 국가에서 온 외국 유학생 10명과 글로벌 경험이 많은 한국 대학생 5인으로 구성된 홍보대사이다.

이들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소식, 체험 콘텐츠 등을 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외의 관계망 서비스(SNS)에 소개하고 국제교류 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펼친다. 박람회 조직위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박람회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제행사의 품격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는 이들 유학생들과 정기 간담회, 국가정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미래 국제교류의 발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 최종심 최고층 아파트 온다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 35’ 분양

### 학동 35층 규모...84㎡~179㎡ 244가구 8일 1순위 청약 접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여수에 오랜만에 브랜드 아파트가 신규 분양돼 눈길을 끈다.

쌍용건설의 ‘쌍용 더 플래티넘 여수 35’는 여수시 학동 74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35층, 2개동, 총 244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여수 도심권에 18년 만에 공급되는 브랜드 아파트다. 전 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며, 242가구가 84㎡이고 나머지 2가구는 179㎡다.



<조감도>

여수 도심지에서 가장 높은 지상 35층 규모로 들어설 이 아파트는 대다수 세대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오션라이프형 랜드마크인 것이 특징이다. 여수 최종심에 자리해 여수 전 지역은 물론 순천, 광양도 쉽게 오갈 수 있다. KTX 여천역도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있다. 여수시청, 법원, 주민센터 등 주요 관공서와 중심상업지에 걸어서 갈 수 있다. 또 쌍용초교, 여수웅천중학교, 여천고교 등 교육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쌍용건설 시공의 ‘플래티넘’ 브랜드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스마트키나 스마트폰 접촉 없이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 있는 ‘스마트 원 패스시스템’, 엘리베이터 안 공기청정시스템과 항공 핸드레일 등이 도입됐다.

또 집안에는 친환경 보일러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뛰어난 스마트 클린 환기시스템이 설치된다. 차량 및 무인택배 도착 알림, CCTV 모니터링, 에너지사용량 조회 등 기능을 갖춘 터치스크린 월패드, 스마트 일체형 스위치, 지하 주차장 주차유도시스템 등 최신 스마트 시스템도 도입된다. 모든 가구에 펜트리와 광폭 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와 현관 공기청정시스템, 욕실 복합형 환기시스템 등도 설치된다.

전분주택은 여수시 웅천동에 위치한다. 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양시,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최우수상

### 유당공원 동일터널 자전거도로 ‘차단숲’ 분야 선정

광양시가 녹색도시 우수사례 ‘차단숲’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광양시는 산림청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차단숲’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함께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산림청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는 도시숲·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이 잘 발휘된 녹색도시를 조성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며, 올해는 전라남도 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광양시가 공모해 ‘차단숲’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전선 폐철도 4.0km 구간 중 천연기념물 제235호인 광양읍수와 이팝나무가 있는 유당공원 주변은 2016년 7월 폐선 이후 오랜 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쳤던 곳이다.

시는 유당공원 내 분포하는 전동 수종을 토대로 이팝나무·팽나무 등 7종의 교목과 철쭉·홍가시 등 2종의 관목류, 맥문동·꽃무릇 등 화초류를 식재해 전통숲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광양시 동일터널 자전거도로 주변 도시숲. <광양시 제공>

또 기존 산책로와 연계해 400m를 신규 개설하고 등자, 안내판 등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점에서도 산림청 관계자와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 구직자 면접비 지원 호응

곡성군이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3월부터 ‘곡성군 관내 기업 면접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에 면접을 본 지원자에게 1인당 5만원씩 최대 2회 면접비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군은 현재까지 50명의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지원했으며 연말까지는 총 70명 이상 지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면접비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곡성군 내에 있는 기업체에 면접을 본 뒤 면접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곡성군 일하잡(JOB)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해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곡성군은 올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로컬잡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직업 상담, 일자리 알선, 직업 채용 등 곡성군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10월말 현재까지 상담 177명, 알선 57명, 취창업 40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문의는 일하잡 센터(061-362-8742)로 하면 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t@



가족과 함께 힐링~ 곡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통영 금호리조트에서 ‘우리 가족 심나는 통영 FUN할지도’라는 주제로 가족 힐링 캠프를 진행했다. 캠프에는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 20가구, 85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가족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며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곡성군 제공>

# 구례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심폐소생술 교육

구례군이 순천소방서와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심정지 환자 발생 시)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방법을 교육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5분이 경과하면 뇌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 혈액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각한 뇌 손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심정지 발생 후 1분 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은 97% 이상이지만 4분이 지나면 50% 이하로 크게 떨어지므로 심정지 발생 초기 5분의 대응이 생과 사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